

**이번 퇴직자의 재직 중 불법 일탈행위를
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,
향후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
만전을 기하겠습니다.**

1. 관련 기사

- 3.29.(금) 연합뉴스, “가족 동원해 ‘셀프신고’...억대 포상금 챙긴 전 노동부 수사관”

2. 설명내용

- 해당자('22.12.31. 퇴직)는 퇴직 전 2년간('21.6.14.~'22.9.6.)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포상금을 악의적·불법적으로 편취하였음

* 사기죄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, 직권남용행사방해죄

-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전례 없이 급증하면서 '21~'22년간 부정수급액도 증가하였음

- 이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불법적으로 악용해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포상금을 편취한 불법 사기행각임

- 우리부는 해당자의 구속사실을 인지('24.3.27.)*한 즉시 공무원연금 공단에 연금 지급제한을 위해 신속히 수사결과를 통보하였음(3.28.)

* '24.3.27, 부천 원미경찰서 수사결과 통지

- 또한 부적정하게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5배를 포함하여 환수조치할 계획임

-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, 점검·감사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
- 이와 관련하여 '21~'22년도 고용안정사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조사하고, 관련 담당자 및 소관부서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를 정비해나가겠음

담당 부서	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준호 (044-202-7227)
		담당자	사무관	김용현 (044-202-7305)
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	책임자	과 장	이원주 (044-202-7368)
		담당자	사무관	고복현 (044-202-7349)

